지역 소식통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정읍시, 우수 지자체 선정

정읍시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부문'에서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2020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실적을 기준으로 224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체 필수조례 정비율이 우수한 상위 지자체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령용어 순화 작업과 상위법 위배 검토 등을 통한 통일된 법 규정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행일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교통안전시설 강화

정읍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신호등 확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확충한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내년까지 2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와 협의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3AC, 정읍에 증설투자 확정

필터 생산의 국내 강소기업으로 정읍시와 협약 체결
첨단산단 내 5990㎡ 부지에 37억원 투자, 내년 착공

필터 생산의 국내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3AC(대표이사 채성호, 고정곤) 정읍공장이 첨단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3AC는 22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채성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AC 정읍공장 확장 증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AC는 첨단산업단지 내 5,990㎡(1,812평) 부지에 37억원을 투자해 내년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공장 확장과 함께 생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 회사 운영에 따른 20여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3AC는 2007년 4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70억 투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매직, 웅진코웨이, 암웨이 등에 필터를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 증가율이 매년 42%, 영업이익 증가율이 13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채성호 대표는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신만큼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3AC가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에 감사하다"며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지원,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3AC는 22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채성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AC 정읍공장 확장 증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내년 도로정비에 58억원 투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정읍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21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도로 정비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1년 주요 사업으로는 고부면 주산마을 회전교차로 사업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원을 투입한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통행 시간 단축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규정에 맞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따른 인도 정비공사에 4억원을 투입해 노후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보도폭을 일부 확장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발 200m의 중산간 지대에 있는 쑥고개로 열선 설치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도 추진한다.

지방도 715호 노선인 쑥고개로는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상습 결빙이 잦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열선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내년도부터 열선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가지 맨홀 단차 보수 공사 및 도로관리 민원 해결사업에 6억원, 노후 교량 정밀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에 9억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지역 내 주요 시가지 도로와 시군도 15km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추진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0km의 인도를 정비했다. 또, 정읍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노후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 말고개 열선 설치공사 등 총 137억 원을 투입해 도로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2021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도로 정비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한다.

부안군, 저소득층 지원 확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4.02%, 4인가구는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상향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김미옥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선정

60억원 사업비 확보 성과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서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축사 악취 등의 민원이 많거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타당성 검토 등)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됐다.

전북도에서는 고창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특히 고창군은 사업의 필요성, 축산악취 원인분석, 문제해결 방안, 지역주민과 갈등해소 방안 등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전북 1위의 가장 많은 국비(12억원)를 포함한 60억원의 사업비(국비20%, 도비6%, 군비14%, 융자60%, 자부담10%)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60억원을 11개 사업에 투입해 152농가에 축산악취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정병진 축산정책팀장은 "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를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인만큼 축산농가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축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유기상 고창군수가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한 방역현장을 방문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7일 흥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현장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주변 10km이내 7개 농가 42만40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방문하고 "지난해 9월부터 휴일도 없이 강추위에 맞서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노력해주는 것을 잘알고 있다"며 "위기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확고한 원칙에 따른 신속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예찰과 꼼꼼한 방역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창군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4시간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거점소독시설을 3개소, 철새도래지 탐방객과 축산차량의 통제를 위한 통제소독초소 5개소를 운영중이다. 이외에도 동림저수지 소독을 위해 드론방제 15대, 광역방제기 3대, 살수차 3대, 무인헬기 1대, 공동방제단 3개반으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실시 중이다.

/고창=김영식기자